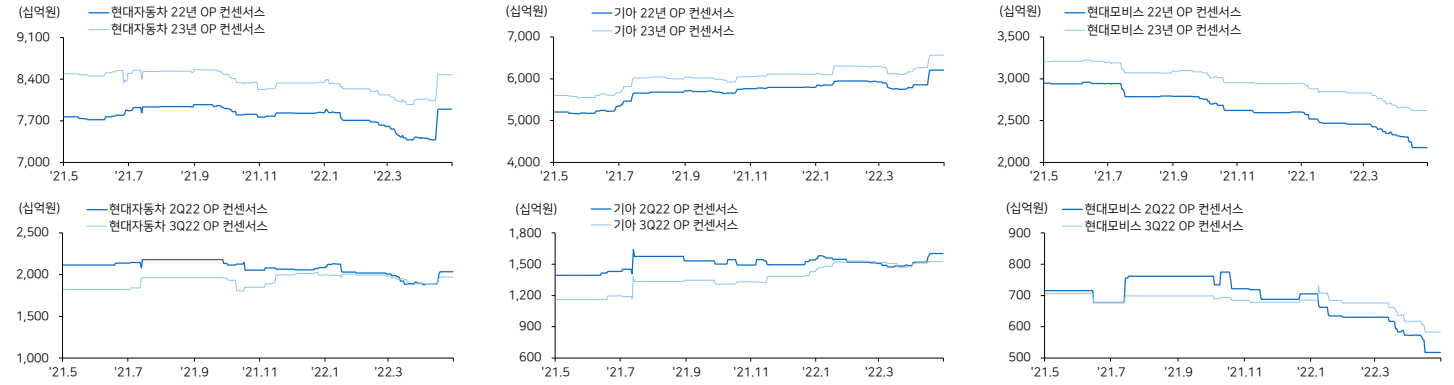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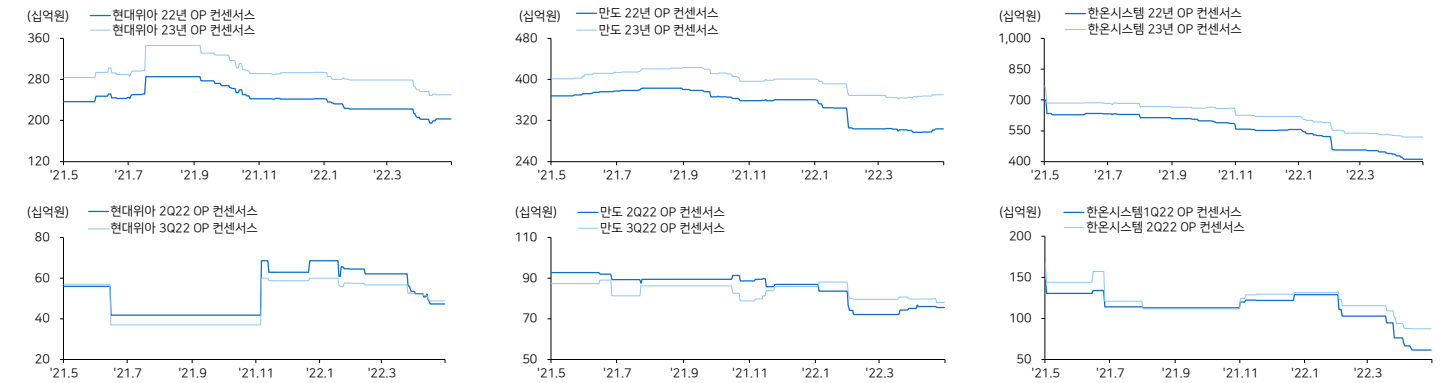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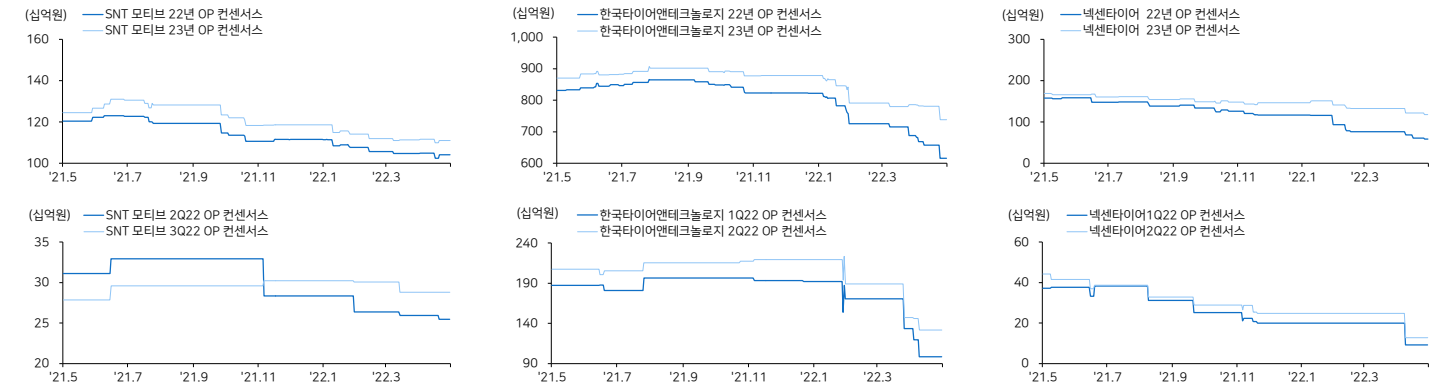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신설 논의 중 (조선비즈)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주 당국과 협의하는 중이며,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미국 시장을 겨냥한 아이오닉7과 EV9를 출시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현대차 관계자는 확정된 바 없다고 언급.
<https://bit.ly/3soWmDY>

미래차 확대로 2030년엔 내연기관 부품업체 30% 감소 (뉴시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인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중 내연기관 관련 업체의 30%가량은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 대신 전기·전장 관련 부품기업은 같은 기간 250곳에서 600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https://bit.ly/3FKd3IN>

Tesla explains its approach to sourcing lithium, nickel, and cobalt directly from mines (electrek)

Tesla는 배터리 공급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광산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를 소싱하는 접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함. 2021년 삼원계 배터리에서 사용되는 수산화리튬의 95%, 코발트의 50%, 니켈의 30% 이상을 직접 소싱했다고 밝힘.
<https://bit.ly/3yukaKm>

Mercedes-Benz CEO sees soaring demand, teases electrified AMG platform (Reuters)

벤츠 CEO는 타이탄 공급망으로 인해 고급차 업체의 생산이 수요 증가를 따라잡기 어려워 전기차 매진과도 언급함. 또한 고성능 AMG 브랜드를 위한 완전 전기화된 플랫폼의 세부 사항을 예고, 2025년 말 출시를 언급함.
<https://reut.rs/3kVmxhp>

애플, 자율주행차 '시리(Siri)' 명령 적용가능... '특허 업데이트' (지피코리아)

애플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에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Siri' 명령이 적용되는 특허를 신청함. 스마트폰 터치스크린과 시리와 같은 음성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자율주행차를 주차하거나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도착하게 하는 기능으로 예상됨.
<https://bit.ly/3vVOCgD>

자율주행 원하세요? 구독하세요... 자동차 옵션 '구독시대' (국민일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을 팔 때 옵션으로 제공하던 기능을 연 단위 혹은 월 단위로 돈을 내고 구독할 수 있도록 바꾸는 중. 벤츠는 전기차 EQs의 후륜조향기능을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
<https://bit.ly/3FzgVmC>

Toyota expected to forecast higher profit, helped by solid demand, weak yen (Reuters)

원자재 비용과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요와 엔화 약세 덕분에 토요타의 호실적이 예상됨. 토요타는 지난 회계 연도의 생산과 판매가 3년만에 처음으로 yoy 증가했지만 부품수급 차질로 4~6월 감산을 발표할 바 있음.
<https://reut.rs/3Ftte3N>

Volkswagen CEO sees tight race with Tesla for e-car crown by 2025 (Reuters)

폭스바겐 CEO는 FT Future of the Car 2022 컨퍼런스에서 'Tesla가 이렇게 빠르게 잘 준비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2025년까지 Tesla를 추월하고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https://reut.rs/3vUwHhO>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